

# “에너지 신산업·문화 기반 도시재생...명품남구 만들것”

민선 7기 구상 듣는다

김병내 남구청장

“남구는 유례없는 지역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역량을 쏟아 경제·교육·복지 1등 명품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25일 만난 김병내(45) 광주 남구청장은 취임식 마저 생략하고 현장을 찾으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는 취임 후 곧바로 제7호 태풍 ‘쁘라삐룬’ 복상에 대비해 상습 침수현장을 점검했고, 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동별 순방을 나서며 16개동 주민과 대화를 이어갔다.

김 청장은 “이번 지방선거로 광주 5개 구청장이 전원 교체됐고 모두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첫 단추부터 잘 꿰야 한다”면서 “이목이 집중돼 중앙집권이 있지만 선택해 주신 22만 남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27개 자치단체장 가운데 최연소인 김 청장

혁신도시 연계 상생사업 추진 ‘양림동-인문학’ ‘방림동-웹툰’ 문화가 꽃피는 골목길 조성

은 광주대학교 학생회장을 지낸 뒤 국회의 원 보좌관, 광주시청 직소민원실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을 지냈다. 또 지난 2월 말까지 문재인 정부 비서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청장은 정당, 행정, 국정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통해 두터운 인맥을 쌓았다. 40대 리더인 김 청장은 보수적 성향이 강한 남구에서 22만 구민의 선택을 받았다.

김 청장은 국정경험과 중앙정부의 인맥을 십분 활용해 마을과 거리가마다 문화가 살아 숨쉬고, 모든 세대와 계층에 복지 혜택이 충만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활기찬 경제도시 행복한 복지 남구”라는 민선 7기 구정운영 목표로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삶을 누리는 문화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맑고 푸

른 안전도시 ▲참여와 소통의 자치도시 등을 제시했다.

김 청장은 민선 7기 구정의 현안으로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도시 육성을 꼽았다.

그는 “백운광장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로 이어지는 ‘광주·전남 상생1번길’ 사업을 통해 에너지 관련 기업과 국내의 공공기관, 기업연구소, 한전공대를 한데 묶을 계획”이라면서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남구는 광주를 대표하는 경제도시가 될 수 있고, 광주 역시 소비도시가 아닌 산업도시로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남구가 한전 중심의 빛가람 혁신도시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에너지 신산업 산학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대표적 광주·전남 상생발전 과제로 약속한 바 있다.

남구는 또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월산동의 골목길에 빈집이나 폐가를 활용한 문화예술창작 레지던스 골목길과 사자동 음악창작 골목길, 1980-

1990년대 만화방이 많았던 방림동에는 웹툰 골목길, 양림동 인문학 골목길 등 문화 예술이 꽃피는 골목길 조성사업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지금까지는 구도심의 노후 주택을 밀어 버리고 그 자리에 아파트만 지어왔는데 이게 능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양림동 펭귄마을 골목길처럼 골목길이 동네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교육 1번지인 남구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센터 유치와 청소년 창의문화교육 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청소년 창의문화교육 센터 건립은 남구의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 독자적 추진이 어렵다”면서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광주시 지원사업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이 주인 되는 공감 행정을 펼쳐 변화된 구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고 다짐했다.

/글=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사진=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찾은 우즈벡 주지사단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25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슈크랏 가나에프 주지사 일행을 접견하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정 부시장, 슈크랏 주지사는 물론 아브두라호모프 무호신호자 부지사, 김운세 호남직업전문학교 이사장, 윤택림 전 전남대학병원장, 정인채 새천년종합건설 대표,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이치선 미래산업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 폭염 대응 특교세 자치구에 4억8000만원 지원

광주시는 26일 장기화되고 있는 폭염에 대응하도록 5개 자치구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억80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폭염대책비는 각 자치구별로 살수차 추가 운영 1억원, 그늘막 설치 1억원,

쿨링포그 설치 2억원, 폭염예방 홍보활동비 8000만원 등의 명목으로 지원된다.

광주시는 단기간에 폭염 예방효과가 나타나도록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집행해 줄 것을 자치구에 당부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매일 영상회의를 열고 폭염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추진실태 등을 실시간 점검할 계획이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가시적인 효과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최대한 조기 집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스마트폰 없어도 꿀잤이네요” 시청소년상담센터 캠프

“스마트폰이 없어도 재미있게 놀 수 있었어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없이 12일간 지내기’ 도전이 성공했다.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2018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11박12일·사진)를 26일 성공리에 마무리했다”고 이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캠프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해소하고 건강한 미디어 사용습관 키우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전주군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에서 진행했다.

캠프에는 광주지역 여자청소년 36명이 참가했다. 청소년들은 11박 12일 동안 인터넷·스마트폰 등 미디어 기기와의 단절된 채 지냈다. 임상심리사 및 상담심리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만나 인터넷 중독의 위험성 인식, 자기통제감과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향상을 위한 집단상담·교육 등을 받았다. 또 인터넷·스마트폰 등과 같은 미디어 기기 사용을 대신할 수 있는 체험·대안활동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캠프에 참여한 한 여학생은 “스마트폰 없이 12일을 지내게 된게 정말 신기하다”며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없어서 심심하기



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는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면서 또다른 재미를 찾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부모들도 “캠프에 보내면서 중간에 포기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는데 스마트폰 사용 없이 잘 참아낸 우리 아이가 매우 대견하다”, “캠프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가정에서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등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캠프가 종료된 후에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3개월(12회기) 동안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고 캠프 사후 모임을 통한 부모교육, 집

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차은선 센터장은 “청소년기의 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건강한 성장을 방해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대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캠프를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2009년부터 지역센터 최초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를 매년 여는 등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예방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계약서 많이 써서 꼭 돈벌어야 하는 분!  
열정이 남다른 중개사님, 실장님!  
딱! 세분만 모십니다.

(주)가은부동산 중개법인  
연락처 010-2800-3589

